

- 주요 뉴스: ECB 통화정책회의 개최 0.75%p 인상 예상 대차대조표 축소 논의 가능성도 관심
 - 미국 재무장관,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고착화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
 - 영국 재무장관, 중기 측면에서 공공부채 축소를 추진
 - 중국, 차기 지도부는 시진핑 측근 인사 중심으로 구성. 기존 주요 정책 유지 예상
 - 국제금융시장(주간): 미국은 금리인상 속도 조절 기대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
 주가 상승[+4.7%], 달러화 약세[-1.2%], 금리 상승[+20bp]
 - 주가: 미국 S&P500 지수는 예상보다 양호한 3/4분기 기업실적 등이 호재로 작용
 유로 Stoxx600 지수는 영국의 감세안 철회에 따른 투자심리 안정 등으로 1.3%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이 영향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1.4%, 0.7%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통화긴축 지속 전망 등이 반영
 독일은 ECB의 큰 폭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11년래 최고치
- ※ 원/달러 환율(주간) 0.8% 상승, 한국 CDS 보합

		10/21일	10/14일	전주말대비			10/21일	10/14일	전주말대비
주가	미국	3,752.8	3,583.1	4.74%	국채 금리 10y	미국	4.22%	4.02%	20bp
	유럽	396.29	391.31	1.27%		독일	2.42%	2.35%	7bp
	중국	3,038.9	3,072.0	-1.08%		영국	4.05%	4.34%	-28bp
	일본	26,891	27,091	-0.74%	CDS 5y	한국	62bp	62bp	0bp
	한국	2,213.1	2,212.6	0.03%		중국	120bp	115bp	5bp
환율	달러지수	112.01	113.31	-1.15%	위험 지표	EMBI+	477	478	-1bp
	유로화	0.9862	0.9722	1.44%		VIX	29.69	32.02	-7.28%
	엔화	147.65	148.67	0.69%		WTI유	85.05	85.61	-0.65%
	위안화	7.2306	7.1925	-0.53%	원자재	구리	347.5	342.4	1.49%
	원화	1,439.8	1,428.5	-0.78%		금	1,657.7	1,644.5	0.80%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ECB 통화정책회의 개최, 0.75%p 인상 예상. 대차대조표 축소 논의 가능성도 관심
 - 10/27일 ECB의 통화정책회의가 예정. 시장에서는 유로존이 이미 경기침체에 진입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이 있지만, ECB가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하여 다시 한 번 0.75%p 인상에 나설 것으로 관측
 - 일부에서는 향후 경기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내년부터 지속적인 금리인상에 대한 논란이 증폭될 수 있다고 주장. 예금금리(현재 0.75%)는 이번 회의에서 0.75%p 인상 가능성이 있으며, 내년 2월에 2.25%에 도달한 이후 금리인상이 멈출 것으로 전망(Bloomberg Economics)
 - 다른 한편에서는 ECB가 당분간 인플레이션 안정에 뒤흔친 것을 따라잡기 위해 금리인상에 주력할 것이기에 현 상황에서 정책 기조의 선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반박(BNP의 Spyros Andreopoulos)
 - 한편 인플레이션 문제가 매우 심각하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리인상 뿐 아니라 대차대조표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다만 10년 전 유로존이 재정위기를 겪었음을 고려한다면, 대차대조표 축소는 매우 신중하게 추진될 소지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재무장관,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고착화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
 - 엘런 장관은 소비자들의 중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임금과 물가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때 인플레이션 고착화가 나타나는데, 최근 경제지표들은 향후 인플레이션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신호를 발신한다고 설명
 - 백악관의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장은 경기침체 회피가 가능할 것이라고 발언. 내년엔 경기하강이 지속되겠으나 이는 연착륙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
- 러시아 국방장관, 마·영·프·튀르키예 국방장관과 통화
 - 러시아 쇼이구 장관의 구체적인 통화내용은 미공개. 다만 일부 언론에 따르면 쇼이구 장관은 우크라이나 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가 일종의 방사능 무기인 '더티밤(dirty bomb)'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

■ 영국 재무장관, 중기 측면에서 공공부채 축소를 추진

- 헛트 장관은 200억파운드 규모의 증세를 고려하고 있다고 발언. 또한 공공부채를 줄이고 효과적인 세금 활용을 통한 경제 성장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모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부연

■ 이탈리아 멜로니 정권 출범, 전후 가장 우파 성향의 연립정부 탄생

- 새로운 연립정부의 주요 인사들 가운데 지안카를로 조르제티 장관은 온건파 인물로 여겨지며, 안토니오 타야니 외무장관은 친유럽파로 평가

■ 중국, 차기 지도부는 시진핑 측근 인사 중심으로 구성. 기존 주요 정책 유지 예상

- 10/23일 개막한 20기 1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고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새롭게 선출된 4명의 상무위원은 모두 시진핑 주석과 가까운 인사. 기존 관례가 유지된다면, 차기 총리는 시진핑 주석 다음에 입당한 리시 현 상하이 서기가 임명될 것으로 관측
- 차기 지도부 주요 인사의 특성을 고려 시, 향후 중국의 주요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전망. 이에 외교 및 경제적으로 미국과의 갈등 심화, 공동부유 강조로 인한 민간기업 및 사회통제 강화 등이 전개될 수 있다는 평가가 많은 편
- 다만 일부에서는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견제 증가, 시진핑 장기 집권에 대한 반발 등으로 당국이 기존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강화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

■ 일본 재무장관, 투기적인 외환거래에 엄격히 대응. 당국의 시장개입 가능성

- 슌이치 장관은 투기적인 외환거래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외환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 당국에서 대규모 달러화 매도에 나섰다는 소문이 회자(Corpay의 Karl Schamotta)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10/21 현지시각 기준)

- 유로존 10월 소비자신뢰: -27.6, 9월(-28.8), 예상치(-30.0)

■ 주요 경제 이벤트(10/24 현지시각 기준)

- 미국유로존 10월 S&P Global 종합 PMI, 미국 9월 시카고 연은 전미경제활동지수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연준의 통화정책, 금리인상 속도 조절 시기 및 강도 등으로 관심 이동 - Reuters

(Fed's rate debate shifts to how, and when, to slow down)

- 11월 FOMC에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0.75%p 인상이 확실히. 다만 최근 일부 연준 인사들이 금리인상 속도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속도 조절 가능성과 관련된 이슈가 시장의 주요 관심사로 부상
- 현 상황에서 단기간 내 금리인상 종료를 기대할 수는 없으나, 신용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연준이 기존 예상보다 금리인상의 폭을 다소 낮출 수 있다는 시장 심리가 점진적으로 형성. 특히 많은 경제학자들이 향후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를 표명
- 아울러 연준 내 매파적 인사들 가운데 일부는 강력한 금리인상이 필요하지만, 이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진단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데 동의

■ 글로벌 주택시장, 금융위기 초래 가능성은 제한적. 실물경제 위험은 확대 - The Economist

(A global house-price slump is coming)

- 모기지 금리 급등 등의 영향으로 주요 선진국의 주택가격이 하락을 지속하는 가운데 향후 조정 폭이 심화될 가능성. 일부 국가(한국·북유럽 가계부채, 중국 모기지 보이콧)의 취약성 불구, 은행 건전성 강화 등으로 '07년과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실물경제 충격은 확대될 소지
- 첫째, 주택가격 불확실성으로 인력이동이 위축되면 고용시장의 경직성 확대로 인해 노동력 부족과 기업부담이 심화될 우려. 둘째, 주택시장(250조달러)이 전세계 부(wealth)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주택가격 하락은 소비지출 및 심리를 악화. 셋째, 변동금리 및 단기대출 비중이 높은 국가(뉴질랜드, 스웨덴 등)의 가계부담 확대 등

■ 미국 국채시장, 연준의 양적긴축으로 취약성이 심화 - Financial Times

(The market in Treasuries is storing up troubles)

- 미국 국채시장 유동성 여건 지수는 '20년 3월 수준에 근접하거나 보다 악화. 이에 따라 최근 옐런 재무장관은 이례적으로 국채시장 유동성 관련한 우려를 표했으며 재무부는 바이백(buyback) 정책 관련한 의견을 수렴
- 국채시장 불안의 배경은 투자자 심리 악화, 국채시장 규모 확대(발행잔액 '07년 이후 4배), 연준 국채매입 중단에 따른 시장의 물량소화 부담, 금융위기 이후 규제강화에 따른 프라이머리 딜러의 시장조성역할 축소(거래비중 '08년 14% → 현재 2%) 등

■ 영국 경제, 트러스 총리 사임 불구하고 침체 가능성은 여전 - 블룸버그

(Whoever Wins Loses: Truss's Successor to Inherit Grim UK Economy)

- 트러스 총리의 후임자는 금년 3/4분기부터 경기침체(블룸버그 컨센서스에 따르면, 금년 3/4분기부터 내년 2/4분기까지 마이너스 성장 지속)가 예상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 현 보수당 집권 하에서는 EU와의 무역관계 개선, 해외 이민자 수용 확대 등도 어렵기 때문에 경상수지 악화, 고용시장 수급불균형도 심화될 우려
- 이를 감안할 때 트러스 총리의 후임자가 불황 완화, 장기 성장잠재력 확충 등에 있어서 유의미한 정책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며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재차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는 상황

■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단기적으로 중국 경제에 타격 예상 - Financial Times

(How the US chip export controls have turned the screws on China)

- 미국 정부는 중국의 기술산업을 견제하기 위해 광범위한 반도체 수출 통제를 도입. 이에 중국은 국방 등 여러 핵심 부문에서 반도체 재고 부족 등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 다만 이러한 영향은 단기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중국 자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촉진시키는 역풍을 초래할 소지
- 또한 미국 주요 반도체 기업의 높은 중국 수출 비중을 고려 시, 미국 기업의 일정 수준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 반면 중국 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일부 기업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측
- 한편 중국 정부의 보복 여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 이에 애플 등 미국 기술기업의 소비시장 접근 제한 등 보복조치를 취하기보다는 타협을 원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

■ 전세계 중앙은행, 독립적 통화정책과 거시경제 목표 간 균형 필요 - Financial Times

(A political backlash against monetary policy is loom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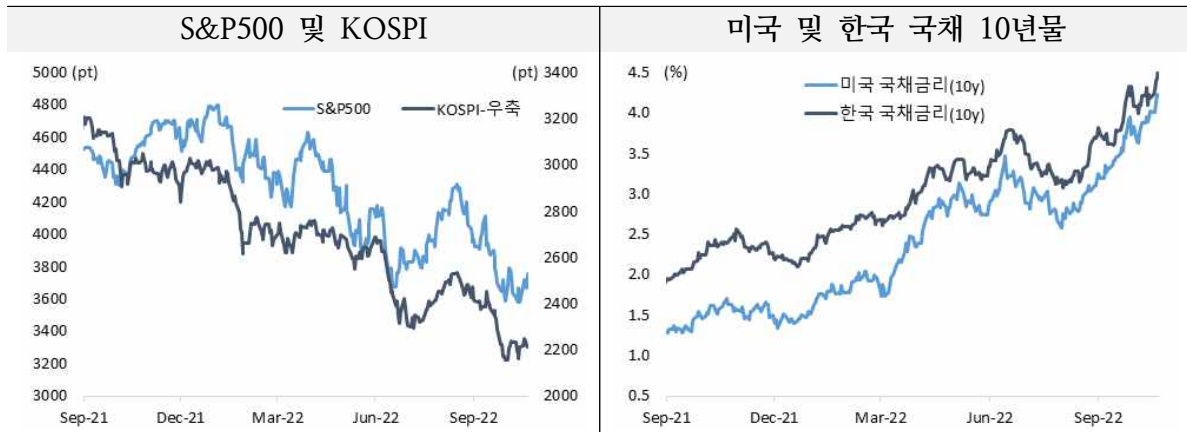
■ LDI 펀드발 혼란, 비유동성 자산 투자 위축으로 연결될 우려 - 블룸버그

(LDI Chaos Likely to Hurt Private Equity and Property Allocations)

■ 한국과 대만 정부의 시장 개입, 경제여건 등을 고려 시 효과는 제한적 - 블룸버그

(Plunging Markets Defy Government Intervention in Taiwan, Korea)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